

“손해 많이 봤지만 방역의 소중함 깨달은 계기 됐어요”

구제역 충격 회복 49일만에 문 연 보성 가축시장 가보니

사룻값은 들어가는데, 내다팔 수도 없고...말도 못하고 속앓이만
백신접종 소홀 목소리...모처럼만의 우시장 농가 경제 활력 기대

“구제역 때문에 우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한 달 반 동안 갑갑했죠. 계속 사룻값은 들어가는데, 내다 팔 수도 없고.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걸렸으니 뭐라 항의할 수도 없고...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28일 오전 8시 보성군 보성가축시장은 49일 만에 문을 연 탓인지 북적북적했다. 농민들이 끌고 온 트럭들이 차례로 시장에 들어서면서 송아지 울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채웠고 모처럼 문을 연 시장을 찾은 농민들의 표정도 들떠있었다.

뺏줄에 묶인 송아지들이 싫은 듯 축척 직원의 손에 이끌려 고정대에 묶였고 농민들 표정엔 시원함과 섭섭함이 묻어났다.

지난달 3월 11일 이후 7주 만에 열린 경매장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축산농가 농민들은 짧은 악수와 인사를 서로 주고받으며, 다시 열린 장에 안도감을 내비쳤다.

경매가 진행될 때만 해도 매주 출하되는 송아지나 비육우(고기 생산을 위한 소)가 보통 기본 25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에 달했던 만큼 다시 열린다 기대감이 컸다.

본격적인 경매는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송아지 318마리(암소 54마리, 수소 264마리)가 출하됐고 낙찰 최고가격은 555만원이었다. 최저가격은 176만원이었다. 구제역 여파로 중단됐던 우시장이 이날 보성을 비롯, 고흥(252마리), 순천(188마리), 담양(360마리) 등 4곳에서 열렸다.

송아지는 보통 5~8개월이 경매에 나오지만 이번 경매 대부분은 9개월이 넘는 소들이었다. 구제역 여파로 전남지역의 우시장이 일시 중단되면서다. 거세 시기도 덩달아 늦어졌다.

농민들은 간만에 장이 열려서 다행이면서도 “지금은 팔아도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농민은 “사룻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를 키우는 거 자체가 부담이 많은데, 정상 시기에 팔았다면

송아지 한 마리당 60만원에서 1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구제역 때문에 출하 시기를 놓쳐 손해가 컸다는 것이다.

보성군 득량면에서 소 5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박기훈(39)씨는 “이전 송아지 시장에서는 뿔이 이치럼 10cm 이상 자란 경우도 없었다. 일반적으로는 5~8개월 송아지가 나오는데 지금 한두달 밀리면서 대부분 9개월 이상 송아지가 나오게 됐다”고 했다.

박씨는 “송아지가 나가야 사료값이라도 해결하는데 그동안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면서 “환을 인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룻값도 계속 올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구제역 여파가 워낙 컸던 만큼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농민은 “일부 농가가 백신 접종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 그동안 열심히 방역을 했던 농가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가 자체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매가 다시 열리니 지역 경제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이준환 보성축산업협동조합장은 “구제역 여파로 경매장이 문을 닫으니 보성 경제가 다 안돌아갔고 식당에 농민들이 거의 안오더라”며 “이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고 물 흐르듯 시장이 흘러가서 숨통이 트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매는 기존 장날인 화요일보다 하루 앞당겨 ‘송아지 경매’만 별도로 열렸다. 29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비육우까지 포함한 전체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성축협 관계자는 “시장 과밀을 막고, 물량 분산을 위해 경매 일정을 이틀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28일부터 구제역 ‘주의’ 단계인 순천·담양·곡성·고흥·보성·영광·장성 등 7개 시·군의 가축시장을 재개장했다. 무안·영암 등 심각 단계 8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소는 거래 할 수 없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



28일 오전 보성군 보성가축시장에서 우시장이 열려 송아지 318마리가 출하됐다. 축산 농가 농민들이 경매에 참여해 소를 살펴보고 있다.

예쁜 눈망울의 꽃사슴은 왜 유해야생동물이 되었나

섬지역 개체 수 폭발적 증가

농작물 피해에 생태계 교란

영광 안마도 10마리→937마리

12월 시행뎌 포획 조치 가능



커다란 눈망울에 하얀 점박이 무늬, 아름다운 뿔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꽃사슴’〈사진〉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꽃사슴이 영광군, 완도군 등의 섬에서 대량 번식을 하며 개체 수를 폭발적으로 늘린 탓에 농가 피해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골칫덩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거쳐 올 12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확인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 포획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상황·개체수 등을 조사해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다는 경우 등 조건 하에 포획 조치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

물로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등이 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배경에는 영광군 안마도의 사례가 컸다.

꽃사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60년대로, 중국·대만·일본 등지에서 관상·사육 목적으로 수입됐다. 1980년대에는 사슴농장, 관광지 등지에서 키우던 꽃사슴이 관리 부실 등으로 야생으로 방목되곤 했는데, 이후 전적이 없는 지역에서 개체 수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안마도의 경우 1985년께 마을주민들이 사슴 10여마리를 방목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937마리까지 개체 수가 늘어났다.

이곳 꽃사슴의 서식밀도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k㎡당 7.1마리)에 비해

23배(k㎡당 162마리) 높다. 이뿐 아니라 완도군 당사도(개체 수 600여마리), 고흥군 소록도(230여마리), 순천시 조례동(70여마리) 등지에서도 꽃사슴 개체 수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바·고추 등 농작물 피해(5500만원), 울타리 등 피해에 방시설 설치(4500만원), 꾸지뽕나무 200그루 고사(6000만원) 등 1억 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꽃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 또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리케차 병원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케차 병원균에 감염되면 고열·두통·근육통·전신발진 등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폐렴·뇌염·다장기부전 등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백색 목록제)하고,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산재 노동자의 날...“노동자 안전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남본부, 전남도에 촉구

전남 지역 노동자들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산재 노동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해 전남도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28일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28 선언’을 했다.

노조는 “노동자 시민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파면시킨 4월의 봄에도, 여전히 사고·과로·직업병·자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국은 여전히 산재 사망 1위 국가로, 연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부상·질병으로 15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도에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전면 적용 ▲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 ▲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 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전면 적용 ▲2인 1조 등 사고·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산재 노동자의 치료와 보상권리 전면 적용 등을 촉구했다.

/김진아 기자 jingg@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